

‘제1세대 중국 작가’라는 수식어에 따른 무게감이 존재하지만  
세계적인 작가 장샤오강Zhang Xiaogang의 하루는 젊은 작가 시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여전히 혁명가의 눈으로 현실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투쟁적인 몸짓으로  
지치지 않고 작업을 하며 여전히 스스로의 편견에서 벗어나려 한다.  
단지 달라졌다면 그가 직접 개조한 별 좋은 작업실에서 피우는 시가 한 대가 더욱 여유로워졌을 뿐.  
작가 장샤오강이 새로운 아틀리에로 우리를 초대했다.

## 거장의 가벼운 나날들

베이징 시내, 자신의 오래된 별장을 직접 개조하고 꾸민  
새로운 아틀리에에서 만난 장샤오강.  
이곳에서는 주로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한다.  
최근 그는 조각 작품과 함께 인물과 공간을 회화 작업에  
녹여내는 신작을 준비 중이다.





1층 거실 중앙에는 그의 조각 작품과 함께 대형 작품을 두었다.  
‘Sunflower’, Oil on canvas, 200cm× 260cm, 2012.



식물이 드리운 그림자조차 여유로웠다. 복층 구조의 너른 창으로 스민 오후 2시의 햇살은 간만에 집 안 구석 구석을 간지럽히고 있었다. 베이징의 악명 높은 미세먼지도 그날만큼은 나긋했다.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찻물이 끓어오르고, 진한 시가 향도 피어 올랐다. 12월 1일, 오후 2시, 중국 베이징 시 다운타운의 고급 별장. 색감이 빈티지한 소파에 앉아 그 별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남자는 작가 장샤오강이었다.

11월 19일까지 페이스 베이징 갤러리에서 미니멀리즘의 대가 솔 르윗Sol LeWitt과 2인전을 펼친 직후의 만남이었다. 전시를 끝낸 후의 여유와 아틀리에의 아늑한 분위기가 중첩되어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고, 주변 공기도 가볍게 느껴졌다. 조용히 찻잔을 들어 차를 건네며 미소 짓는 그, 복잡한 질문보다 직접 개조한 아틀리에 관련한 가벼운 질문이 어울릴 것 같았다. “이 별장은 오래전에 사두고 전혀 쓰지 않았어요. 주로 대작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런 공간보다는 창고 같은 형태가 편하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좀 더 집중적인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했어요. 지하는 수장고로, 1층은 주로 사람들을 만나는 다이닝룸과 미팅룸, 2층은 천장을 뚫어 별이 잘 드는 작업실로 개조했죠. 3층에는 작은 개인 룸이 있고요. 2층에서 작업을 하면 벽을 타고 캔버스가 자동으로 수장고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기계를 제작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웠어요.”

현관 입구에 걸린 작품은 물론 코너마다 놓인 각종 식물과 천장의 조명까지. 묻는 질문마다 그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그의 배치법에는 나름의 이유가 존재하는 듯했다. 현관에 걸린 본인의 거울 시리즈 작품을 시작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작가 왕광이Wang Guangyi, 아라키 노부요시Araki Nobuyoshi, 프란세스코 클레멘테Francesco Clemente 등의 작품이 계단과 벽에 흐르고 있었다.



1현관에 놓인 거울 시리즈 작품.  
‘The Soul of Mother’, stainless Steel Plate, oil paint, fiber glass, acrylic, 140×220 cm, 2010. 2드로잉 작업실에 놓인 책장에는 그가 탐구한 책이 가득하다. 맞은편에는 그가 작업을 하면서 듣는 다양한 장르의 CD가 가득 꽂혀 있다. 3최근 발간한 장샤오강의 책, 쓰촨 파인 아트 퍼블리싱 하우스에서 출간한 것으로 그의 작품 스토리가 총망라되어 있다.





## 과거의 기억 속 공간을 찾아

요즘 장샤오강은 공간을 탐구하는 중이다. 기억 속 공간, 인물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나쁜 별을 털어내고 책상 위에 가득 쌓인 책 중 한 권을 들고 왔다. 그의 작품이 도출되는 과정을 정확히 설명해줄 각종 사진이 빼곡한 책. 그는 젊은 시절부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기록하고 이를 작업으로 표현해왔다. 얼마 전, 평론가 황 주안Huang Zhuan과 함께 그의 기록물을 탐구해서 만든, 1981-2014년의 작업 이야기를 담은 책 〈Zhang Xiaogang Zuopin Wen Xian yu Yanjiu 1981-2014〉은 무려 5년이 걸렸다. 작업할 때마다 생각을 기록하고, 그 기록이 다시 생각이 되는 작업을 반복한 그. 두터운 시간을 정확히 탐구할 수 있는 것은 완벽주의자 장샤오강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2015년에는 파이돈 프레스Phaidon Press에서 중국 작가 중 가장 기억해야 할 아티스트로 그를 꼽고 유명 평론가이자 교수 조너선 파인버그Jonathan Fineberg와 게리 G 소Gary G Xu가 그의 기록물을 일일이 정리해서 책을 냈다. “이런 책이 나온다는 것은 회고전을 펼치는 마음과 같아요. 이것은 마무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행보로 봐야죠. 결국 1세대니, 몇 세대니, 세계를 좌우지 하는 중국 스타 작가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오로지 지금 한발 내딛고 있는 시간만 생각할 뿐이죠.” 그 앞으로 펼쳐진 팔레트에는 수십 가지 컬러가 또 하나의 추상 화폭을 만들고 있었다. 3개월만 지나면 소복한 밥처럼 그릇 위에 물감 더미가 쌓인다고 말하는 그.

“지금 중국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 현실인식과 심리적인 감수성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죠. 그래서 불안정하고,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본래 그런 변화에 무심한 편이에요. 무게 중심을 찾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더욱 과거의 것을 떠올리고 다시 정리하며 현재의 좌표를 찾고 있죠. 요즘 젊은 작가들도 현재에 충실하고 오늘을 돌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다시 찾물을 꿰었다. 오후 5시의 고운 별이 그의 작업실 전체를 덮었다. 그렇게 그의 온기 넘치는 아틀리에에는 지금의 행복을 발견하기를 권하고 있었다. **▣** 에디터 계안나 | 포토그래퍼 김동욱 | 진행 및 취재 협조 김수현



1 거실에 놓인 작품은 왕 구안을Wang Guanle의 작품. 'Untitled', Acrylic on canvas, 180 x 150 cm, 2009.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본인의 조각품과 앤티크 수집품, 그리고 왕마이Wang Mai, 프란체스코 클레멘테등 그가 아끼는 작품을 두었다. 3 장샤오강의 설치 작품.



1층 거실 옆의 다이닝 룸 풍경. 벽에 걸린 것은 리 송송Li Songsong의 회화 작품과 프란체스코 클라멘테의 회화 작품, 조명, 의자, 테이블과 식물들 모두 장샤오강이 직접선택한 것이다.

장샤오강은 책상 위에 10년의 간극이 있는 두 작품을 나란히 두고 자신의 변화를 성찰한다고 말한다. 과거의 작품인 왼쪽은 'The Book of Desire(Oil on Paper, 62.2x72.6cm)', 근작인 오른쪽은 'A Book Prisoner, (Oil on Paper, 40×30cm)'이다.

